

제주해녀에 대한 이미지와 사회적 정체성*

안 미 정**

요 약

제주해녀는 근면하고 강인한 제주여성으로 상징화 되어 왔다. 오늘날 제주해녀는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고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부지런하고 강인한 제주해녀의 이미지와 더불어 제주 관광산업의 발달은 제주해녀를 상품화하기에 이르렀고, 이 과정에서 제주해녀는 실제와 다른 새로운 이미지로 재생산되고 있다.

부지런하고 강인한 여성의 이미지는 현재 60세 이상의 나이든 세대를 모델로 하여 그 이미지가 각종 문헌들을 통해 꾸준히 재생산되어 왔고, 이러한 이미지는 사회적 상황에 알맞는 상징적 모델로 제공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미지의 양산은 제주해녀들을 비롯한 모든 제주여성들에게 초과노동을 정당화하고 억압적 이데올로기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관광산업의 발달은 '여자가 많은 섬'을 알릴 수 있는 소재로써 제주해녀를 상품화하였고, 이때의 이미지는 문헌을 통해 재생산되어 온 이미지와도 다르게 재현되고 있다. 젊은 여성을 모델로 한 제주해녀 관광상품들은 관광산업에 의한 제주해녀의 심리적 비하감과 소외감을 초래하고 있다.

이처럼 재생산 되고 있는 이미지와 달리 제주해녀들의 사회적 정체성을 통해 본 그들 자신에 대한 규정은 유교적 관념에 의한 친시함과 물질이 중노동이라는 인식, 관광산업의 영향, 물질을 선택하게 된 과거의 경험 등의 이유로 이미 알려진 사회적 상징화의 내용과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 본 글은 1997년도 본인의 석사학위 논문 "제주해녀의 이미지와 사회적 정체성"을 수정 요약한 것임. 보다 나은 글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익명의 논평자들에게 감사드린다.

** 제주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졸업

따라서 제주해녀에 대한 이미지는 사회의 변화와 상업적 목적에 따라 변화, 조정되면서 재생산 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당사자인 제주해녀들은 사회적으로 상징화 된 내용들과는 별개로 존재하고 있다. 제주해녀는 물질에 대한 강한 자부심과 천시함의 시선, 경제적 고소득과 중노동의 고통, 생활력이 강한 직업인과 관광산업에 의한 성상품화의 갈등구조 속에 놓여 있다.

I. 서 론

1. 연구목적

제주해녀는 근면하고 강인한 제주여성의 전형(典型)이라고 일컬어져 왔다. 1) 半農半漁의 성격이 강한 제주도 해안마을에서 제주해녀는 물때에 맞추어 물질을 하며,²⁾ 계절과 농번·농한기의 구분 없이 제주도의 다른 여성들 보다 더 많은 노동을 하고 있다. 게다가 거친 파도와 깊은 바다 속에서 특별한 장비도 없이 각종 해산물을 채취하며, 특히 입덧과 출산 전후에도 물질을 하는 강인함은 높이 평가되어 왔다.³⁾

-
- 1) 일반적으로 쓰이는 '해녀'라는 호칭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입장들이 있다 (강대원, 「해녀연구」, 한진문화사, 1973; 제주도, 「제주의 해녀」, 1996; 전경수, 「한국문화론」, 일지사, 1994). 필자는 호칭의 당사자인 주체와 부르는 자의 표현이 이원화 된 상황에서 물질하는 주체자의 표현을 우선시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본 글에서 '제주해녀'라고 표기하는 것은 ① 이미지에 관한 연구에서 언어가 갖는 이미지가 중요하며, ② 본인들 스스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잠수(潛嫂)'는 잠수(潛水)한다는 말과 중복되는 혼란을 피하고, ③ 육지의 해녀와 구분짓고자 하기 때문이다.
 - 2) 해수면의 높이는 달의 끌림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달라진다. 太陰曆에 따라 潮水名을 정하는데 이때 조수간만의 차에 의해 생기는 조류의 변화를 일컬어 물때라고 말한다. 물질은 바다 속에 들어가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일을 일컬어 제주해녀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말이다.

오늘날에 와서는 제주해녀를 근면하고 강인한 존재로 높이 평가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물질하는 것을 천한 것으로 보았다. 제주해녀의 모습에 대한 기록은 李健의 「탐라문헌집: 제주풍토기」에서 처음으로 나타난다.⁴⁾ 17세기에 제주에서 유배생활을 하였던 李健의 기록을 통해, 男女有別을 강조하였던 유교사회에서 남녀가 같이 물질을 하는 것에 대한 놀라움과, 특히 <물소중이> 만을 입고 물질하는 ‘벌거벗은’ 모습에 제주해녀를 ‘천한 것’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⁵⁾

과거에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들이나 유배인들이 천하다고 보았던 ‘벌거벗은’ 모습은 오늘날 관광객을 위해 海女像과 관광도산품으로 다시 형상화되고 있다. 그리고 각종 석상과 관광도산품들은 젊은 여성을 모델로 하여 제작되고 있으며 성적 매력이 강조되어 있기도 하다.

현재 제주해녀의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 제주도에서 물질기피 현상은 이미 보편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이들은 오래 전부터 생산활동을 해왔던 여성 직업집단으로서 제주지역 경제에 기여한 바가 크다.

따라서 본 논문은 첫째, 제주해녀에 대한 이미지가 사회적 맥락에서 어떻게 다르게 만들어지는지, 제주해녀 자신들은 재현된 이미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역의 문화가 관광상품화 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이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측면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를 해볼 수 있다.

둘째, 제주해녀는 물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제주해녀를 바라볼 때나 제주해녀가 자신들을 생각할 때, 물질을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것은 물질이 그들이 하는 일의 핵심이기 때문에 물질

3) 제주도, 앞의 책, pp. 16~20.

4) 李健, 「탐라문헌집: 제주풍토기」(출판년도 미상), 金泰能 역, 제주도교육위원회, 1976.

5) <물소중이>란 제주여인들이 입었던 속옷을 변형한 것으로 흔히 물옷(잠수복)이라 말한다. 1970년대부터 보급된 고무잠수복을 입기 전까지는 이 옷이 잠수복이었다. ‘벌거벗은’ 채 물질을 하였다는 것은 아마도 이 물소중이만을 입고 물질하던 모습을 말한 것은 아닌가라는 해석이 있다(김정숙, “제주도 해녀복 연구,” 「탐라문화」 제10호, p. 67).

에 대한 인식은 중요한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과거와 달리 물질기피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여러 가지의 제주해녀에 대한 이미지가 혼재된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은 제주해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고 제주해녀 자신들은 믿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런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이미지(images)는 담화나 텍스트처럼 표상체계의 물적 형식의 하나이다. 제주해녀에 대한 이미지는 제주해녀라는 대상에 대한 '상상'(imaginary)의 한 표현이다. 상상은 지극히 개인적인 의식의 투사 작용의 산물이며, 통상적 의미에서의 주관이라고 하는 영역이다.⁶⁾ 상상의 내용이 언어로 혹은 이미지로 표현될 때, 그 본래의 내용(혹은 의미)은 일단 퇴색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간의 상상하는 행위는 대상을 현실로부터 분리시켜 다른 방식으로 재구성하는 행위이다.⁷⁾ 그러므로 이미지란 타인에 의해 대상을 현실로부터 분리시켜 상상적으로 재구성된 것이다.

'제주해녀는 어떠한 사람이다'라고 할 때, 이 '어떠함'의 내용이 곧 제주해녀를 바라보는 그 사람의 이미지이다. 이것은 대상(제주해녀)으로부터 나와 재구성된 것이므로 대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지만, 실제의 '제주해녀'와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재구성되는 과정에서 제주해녀라는 대상을 바라보는 사람의 시각이 반영되어 여러 가지 형식으로 재현되게 된다. 따라서 이미지에 대한 연구는 그 대상에 대한 정체성의 논의와 연계시켜야 한다.

이미지가 타인에 의해 대상으로부터 분리되어 상상적으로 재구성된 것이라면, 정체성은 자기 자신에 대한 규정(또는 지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체성은 일생을 통하여 수많은 내용들이 결합되고, 없어지고, 변화되며, 재

6) 이기현, "사회적 상상의 복원 혹은 상징의 사회학", 「현대사회의 이해」, 민음사, 1996, p. 42.

7) 제주도, 앞의 책, p. 42.

조직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되고 있다.⁸⁾ 정체성은 생물학적, 제도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⁹⁾ 자신과 관련된 타인의 행위까지 포함한 자신의 경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정체성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의 문제와 결합된다.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집단 정체성 규정은 첫째, 우리와 구별되는 ‘그들’이 누구인가, 둘째,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라는 질문에 의해 매개되며, 셋째, ‘그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와 관계를 가질 것인가를 규정하는 기초이다.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의 문제와 결합되어 있다.¹⁰⁾

정체성은 자신에 대한 규정이자 또한 남에 의한 나의 규정이라는 측면이 내재되어 있다. 그리고 정체성은 기본적으로 과거의 산물이다. 한 대상에 대해 ‘그들을 연상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과거와 동일한 사람으로 간주하고 바로 이점이 각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과거 상태에 대한 정체감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한다.’¹¹⁾ 즉 ‘그들은 그의 과거를 현재 속으로 가져오는 것’이며, ‘근본적으로 자신을 과거의 자신으로 파악한다.’¹²⁾ 현재의 개인은 다른 사람과 자기의 기억 때문에 자신의 과거에 묶여 있는 존재이다. 자신이 전에 믿었던 것과 경험했던 것들 중 기억에 의해 보존된 것은 그가 자신이라고 인지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타인과 과거에 의해 영향을 받는 정체성은 이론적 입장에 따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¹³⁾ 본 글에서는 자신의 물리적 환경, 사회적 신분,

8) 김향원, “濟州島住民의 正體性에 관한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0, p. 19.

9) Richard Harvey Brown, *Society as Text: Essays on Rhetoric, Reason, and Reality*,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7, p. 28.

10) 정근식, “지역 정체성과 도시상징 연구를 위하여”, 「지역사회 연구방법의 모색」, 전남대학교 출판부, 1996, pp. 122~123.

11) Edward Shills, 「전통」, 김병서·신현순 역, 민음사, 1992, pp. 71~72.

12) Edward Shills, 앞의 책, p. 72.

그리고 기타 등을 사람들이 보고 있다고 믿는 방식을 개념화하는 사회적 정체성(social identity)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그 이유는 제주해녀가 사회적으로 상징화되고 상품화되어 타인들에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자신의 생각이 정체성 형성에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3. 연구방법

제주해녀에 대한 이미지를 분석하기 위해 제주해녀에 관한 연구문헌, 제주지역에서 발행되었던 월간지, 각종 해녀석상과 제주해녀를 대상으로 한 관광토산품 등을 텍스트로 삼았다.

제주도에 관한 연구문헌으로서 우낙기의 「제주도」(한국지리연구소 간행부 1965)와 강대원의 「해녀연구」(한진문화사 1973), 조혜정의 “제주도 해녀 사회연구”(「한국인과 한국문화」, 한상복 편, 심설당, 1982, pp. 143~168), 김영돈의 “해녀”(「제주의 민속Ⅱ: 생산기술과 공예기술」, 제주도, 1994, pp. 145~268)를 텍스트로 삼았다. 그외에 월간관광제주社의 <月刊 관광제주> 6호(1985, pp. 80~82)와 25호(1986, pp. 38~42), 월간제주인社의 <月刊 제주인> (1989. 9, pp. 122~124), 한국기자협회 제주도지부에서 발행한 「제주저널」(1993) 등의 제주해녀 관련 기사를 살펴보았다. 이들 연구문헌과 월간지 등을 통해 그동안 제주해녀를 바라보았던 他者들의 시각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문헌들 외에도 제주도 북제주군 지역에 있는 해녀촌의 해녀석상과 북제주군 한림읍의 석상제작소에 있는 해녀석상, 그리고 관광토산품점에서 팔고 있는 토산품들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¹⁴⁾ 이들 석상과 토산품을 통해

13) Richard H. Robbins의 "Identity, Culture, and Behavior"(Handbook of Social and Cultural Anthropology, John J. Honigmann(ed.), Rand McNally College Publishing Co.(Chicago), 1973, p. 1206)와 유철인, "제주사람들의 문화적 정체감"(「탐라문화」 제5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6, p. 82.)을 참고

서 제주해녀가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지를 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물질을 갖 마치고 나오는 제주해녀의 모습을 본인의 동의를 얻어 사진촬영 하였다.

제주해녀의 물질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정체성은 조사표(questionnaire)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표는 예비조사(pilot study)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질문에 대한 응답 요구 형식은 답을 응답자로 하여금 선택하도록 설계한 구조화된 질문(structured question)과 응답자가 자유로이 표현할 수 있도록 답이 개방되어 있는 비구조화된 질문(unstructured question)을 함께 사용하였다. 응답에 대한 기록은 조사원이 기입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응답자의 응답이 질문의도에 맞지 않을 경우는 질문을 이해할 수 있게 반복 질문하였으며, 응답자의 표현방식을 가능한 그대로 기술하였다.

1997년 6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에 걸쳐 필자를 포함한 20명의 조사원이 37개의 사례를 수집하였고, 성산읍 관내에서 제일 젊은 상군 제주해녀(당시 나이 33세)를 만나 심층면접을 하였다.

II. 제주해녀의 현황

제주해녀의 물질행위는 제주도의 해안마을에서는 흔히 볼 수 있었던 보편적인 양상이었다. 그러나 직업인으로서 물질하는 사람은 주로 濟州島를 비롯한 한국과 일본에만 분포되어 있는 듯하다.¹⁵⁾ 제주해녀가 계속 감소화되고 노령화의 추세를 보이지만, 제주도의 수출실적에서 이들의 존재는 여전히 중

14) 해녀촌이란 해안도로를 따라 물질을 하는 마을에서 볼 수 있는 음식점으로 이 마을 제주해녀들이 생산한 해산물을 판매하고 있다. 이 음식점의 운영방식은 마을마다 조금씩 다르며 주로 관광객과 외부인이 많이 이용한다.

15) 제주도, 앞의 책, p. 15, p. 42 참조. 직업인으로서 물질하는 사람이 한국과 일본에만 존재하는 지에 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일본해녀를 연구하고 있는 David W. Plath교수(미국 일리노이대 인류학파)는 탐라문화연구소 주최의 학술모임(1997. 5. 16)에서 세계적으로 해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널리 볼 수 있으나, 직업인으로서 아무런 장비 없이 잠수하는 사람은 한국과 일본에만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1. 제주해녀의 감소와 노령화 현상

1913년에 제주해녀는 8,391명으로, 15세 이상 제주도 여자 인구의 22%를 차지하고 있었다.¹⁶⁾ 이후 제주해녀의 수는 1965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여 15세 이상 제주도 여자 인구의 20% 내외를 유지하였다. 그후부터는 <표-1>과 같이 제주해녀의 수는 1965년에서 1995년까지 30년 사이에 약 4분의 1로 감소하였다.

<표-1> 연도별 제주해녀 수

(단위: 명)

연도 구분	1965	1970	1975	1980	1985	1991	1995
제주해녀 수(A)	23,081	14,143	8,402	7,804	7,649	6,815	5,886
15세 이상 여자 인구수(B)	108,732	112,470	127,319	151,223	173,728	196,608*	199,323
제주해녀 비율 (A/B, %)	21.2	12.6	6.6	5.2	4.4	3.5	3.0

* 1990년도 통계임.

자료: 제주도 수산과 제공, 1997. 5.; 제주도, 「제주도 통계연보」, 1966, 1997.;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인구및주택센서스보고: 제주도」, 1972.

제주도의 15세 이상 여자 인구에서 차지하는 제주해녀의 비율도 1995년에는 약 3%로 매우 낮아졌다.

제주해녀의 수는 특히 1965년부터 1975년까지 10년 동안 약 3분의 1로 감소하여 이 기간에 가장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이 시기는 제주도가 감귤농업

16) 윤유녕, "Toward reviving the myth of woman's land", 제1회 세계 섬학술회의 (제주KAL호텔, 1997. 11. 28.) 발표논문, p. 5.

과 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하려는 개발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하였던 시기라는 점에서, 제주해녀 수의 감소는 제주도의 개발정책과 이로 인한 산업구조의 변화와 깊은 연관성이 있다. 1965년 이후 제주도의 여성인력이 관광산업과 감귤농업 부문으로 흡수되면서, 새롭게 물질을 배우는 젊은 사람들이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따라서 현재의 제주해녀 집단은 노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표-2>에서는 1970년에 가장 물질을 많이 했던 30세에서 49세의 연령층이 10년 후인 1980년까지 가장 활발하게 물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2> 연도 및 연령별 제주해녀 구성

(단위: 명)

구분 연도	해녀수 (%)	연 령 구 성 비 (%)					
		30세 미만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1970	14,143 (100.0)	4,426 (31.3)	7,764 (54.9)		1,953 (13.8)		
1980	7,804 (100.0)	764 (9.8)	4,737 (60.7)		2,303 (29.5)		
1991	6,815 (100.0)	81 (1.2)	1,076 (15.8)	2,153 (31.6)	2,544 (37.3)	866 (13.0)	75 (1.1)
1995	5,886 (100.0)	35 (0.6)	587 (10.0)	1,377 (23.4)	2,160 (36.7)	1,424 (24.2)	303 (5.1)

자료: 제주도 수산과 제공, 1997. 5.

1970년에 전체의 54.9%를 차지하던 30, 40대 연령층은 1980년에는 그 수가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전체에서 60.7%나 차지하고 있었다. 이에 반해 30세 미만의 젊은 제주해녀층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1970년에 전체의 31.3%였던 30세 미만의 젊은 층이 1980년에 9.8%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1995년에는 전체의 0.6%(35명)를 차지하고 있다. 젊은 연령층이 감소에 비해 50대 이상의 연령층은 꾸준히 증가하여 1995년에는 전체 제주해녀의 66%나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제주해녀들이 일반적으로 15세에서 20세 사이에 물질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점을 고려하면,¹⁷⁾ 1960년대와 그 이전에 물질을 배웠던 세대들이다.

2. 제주해녀와 지역경제

제주도내 직업별 여성취업자 117,000명(1995년 기준) 중에서 여성직종인 제주해녀는 총 6,135명으로 5.2%를 차지하고 있다.¹⁸⁾ 제주해녀가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경제적 기여는 그들이 채취한 수산물의 생산량을 보면 알 수 있다.

제1종 공동어장에서 생산되는 해조류, 전복, 소라고동, 성게 등의 수산물은 대부분 제주해녀가 채취한 것들이다. 1960년대에는 제1종 공동어장에서 생산된 수산물 생산량이 제주도 전체 수산물 생산량의 60~80%를 차지하였고,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전체 수산물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였다.¹⁹⁾

제주해녀가 채취한 제1종 공동어장의 생산량은 1980년대에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전체 제주도의 수산업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낮아지고 있지만, 이들에 의해 생산된 수산물의 수출실적은 매우 높다. 1975년 이래 현재까지 제주도 전체 수출실적의 70% 내외가 수산물 수출이었다.²⁰⁾ 제주도 수산물의 수출에서 제주해녀가 채취한 수산물의 비중을 알아보기 위해, 품목별 수출실적 중 소라, 문어, 툇, 알긴산, 계관초 등의 수출실적을 제주해녀가 채취한 수산물의 수출로 계산하여 <표-3>를 만들었다.²¹⁾

17) 지역마다 물질을 시작하는 평균연령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그 마을에서 물질을 얼마나 극성스레 치르는가, 헤엄쳐 나가서 하는 '굿물질', 배타고 나가서 치르는 '뱃물질', 어느 쪽에 치중하는가에 따라서 시작연령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제주도, 「제주의 해녀」, 1996, p. 135 참조).

18) 제주도, 「제주형 사회복지시책(1996~2005)」, 1996, p. 417.

19) 제주도, 「제주도지」 제2권, 1993, p. 837, p. 858.

20) 부문별, 연도별 제주도의 수출실적은 다음을 참조할 것. 제주도, 「제주도지」 제2권, 1993, p. 910, <표 1> 부문별, 연도별 수출실적의 추이.

<표-3> 수산물 수출에서 제주해녀에 의한 수출비중

(단위: 千\$)

구분 연도	전체 수산물 수출 실적	제주해녀가 채취한 수산물 수출실적	제주해녀에 의한 수출 비중 (%)
1980	15,268	9,476	62.1
1986	21,435	12,845	59.9
1988	26,028	22,327	85.8
1990	24,446	16,963	69.4

자료: 제주도, 「제주도지」 제2권, 1993, p. 856, p. 910.

<표-3>에서 보면, 제주도 전체 수산물 수출에서 제주해녀가 채취한 수산물의 수출 비중은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1988년도에는 제주해녀가 채취한 수산물의 수출실적이 전체 제주도 수산물 수출실적의 약 86%나 차지하였다. 이와 같이 제1종 공동어장의 생산량은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제주해녀에 의해 생산된 수산물의 수출실적은 여전히 높다. 따라서 제주해녀의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그들의 물질작업은 지역경제에서 여전히 비중이 큰 생산활동이라 하겠다.

Ⅲ. 제주해녀에 대한 이미지

제주해녀의 재현된 이미지는 사회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이미지로서, ① 제주해녀에 관한 연구와 지역 잡지의 기사, 그리고 ② 해녀촌과 석상제작소의 해녀상, 그리고 제주해녀와 관련된 관광토산품 등을 텍스트로 하여 살펴 보았다. 전자를 문헌에 나타난 이미지로, 후자를 상품화된 이미지로 구분하였다.

21) 제주해녀가 채취한 수산물의 수출실적을 알 수 있는 별도의 통계는 없다. 제주도 수산물의 주요 품목별 수출실적은 다음을 참조할 것. 제주도, 「제주도지」 제2권, 1993, p. 856, <표 23> 주요 품목별 수출추세.

1. 문헌에 나타난 이미지

제주해녀는 제주해녀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제주도에 관한 연구, 지역의 여러 잡지 등 제주도와 관련된 각종 문헌들에서 근면하고 강인한 여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낙기의 「제주도」(사례 1)는 한국학자가 쓴 제주도에 관한 최초의 지리학적 연구이며, 강대원의 「해녀연구」(사례 2)는 제주해녀를 주제로 삼아 본격적으로 연구한 최초의 연구성과이다. 사례 3)과 사례 4)의 텍스트를 쓴 조혜정과 김영돈은 제주해녀를 연구하는 대표적인 학자로 알려져 있다.

사례 1)

海女는 탐라 제주의 뜻이다. 濟州島의 이야기는 海女에서 꽃피워서 해녀에서 끝맺는다. 그리고 海女는 탐라 제주의 象徴이다. 망망한 大海 속에 生命을 걸고 싸우는 그들의 싱싱한 모습들이 바로 한라산의 딸들이다. 海女는 탐라 제주의 근로의 女神이다. 春夏秋冬 四時節에 밭에서 김 안 매면 바다에서 물질하는 숭고한 제주의 딸들이여! 22)

사례 2)

제주도민의 근면성과 자립정신을 높이 평가하고 있지만 그 실에 있어서는 제주도 잠수들의 눈물겨운 근로정신이 근간을 이루고 있는 터이며 이 근로성은 그대로 제주도민의 자립정신의 표상으로까지 승화되어 나가고 있다.23)

사례 3)

용마을의 해녀들은 경제적 가장으로서 책임이 크고, 이 책임을 완수하기

22) 우낙기, 「제주도」, 1965, p. 13.

23) 강대원, 「해녀연구」, 1973, 서문.

위하여 매우 열심히 일한다. 책임감이 강할 뿐 아니라, 부지런하고 능률적인 인간이 용마울의 존경받는 여성상이다. 좋은 며느리감이란 물질 잘하고 밭일 잘하는 이가 꼽힌다. 더구나 이들은 일하는 것 자체를 즐기며, 일을 통해 얻는 대가를 자랑스럽게 추구한다.²⁴⁾

사례 4)

잘 알다시피 바르셀로나에서(1992), 히로시마에서(1994), 마라토너로 세계를 제패함으로써 한국인의 의기와 자존심을 다시 한번 세계에 우뚝 서게 한 황영조선수의 어머니도 제주해녀다. 황영조선수는 무엇을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을까? 그것은 결코 혈통만이 아니다. 오히려 불굴의 정신력이요, 어떠한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까무러침이 없이 고난을 이겨내는 불굴의 의지다.²⁵⁾

1960~70년대에 쓰여진 사례 1)과 사례 2)를 보면, 제주해녀가 물질과 밭일을 열심히 하면서 부지런히 살고 있기 때문에, 제주해녀를 “탐라 제주의 상징”, “근로의 여신”, “자립정신의 표상”으로 그리고 있다. 제주해녀들이 밭일이나 집안 일 등 보편적으로 제주여성이 해온 일들 외에도 물질을 한다는 것은 다른 여성들보다 더 많은 노동을 한다는 것이 된다. 또한 물질은 인내력과 강인함이 요구되는 노동이다. 따라서 제주해녀가 부지런하고 강인한 존재라는 이미지로 보여지는 것은 이들이 더 많은 노동을 하고, 더군다나 물질은 힘든 일이었기 때문이다.

제주해녀가 근로의 여신이나 자립정신의 표상으로까지 “승화”될 수 있었던 것은 1960년대 이후의 사회적 상황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1960, 1970년대는 경제개발5개년계획과 새마을운동이 전개되었던 시기로, 전국민이 경제발전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부지런히 일하도록 강조되던 시기였다. 따라서 제주해녀의 억척스런 삶은 이런 사회적 상황에 알맞은 상징적 모델이 될 수

24) 조혜정, “제주도 해녀사회 연구,” 「한국인과 한국문화」, 한상복 편, 심설당, 1982, p. 159.

25) 김영돈, “제2절: 해녀,” 「제주의 민속Ⅱ: 생산기술·공예기술」, 제주도, 1994, pp. 191~192.

있었고, 그들의 이미지는 더욱 더 근면한 여성으로 고착화 될 수 있었다.

제주해녀의 부지런한 이미지는 1980, 1990년대에도 계속 나타나고 있다. 사례 3)의 조혜정의 글은 제주해녀를 “경제적 가장”으로서 열심히 일하고 또 일을 즐기는 여성으로 그리고 있다. 또한 조혜정은 이들을 부모나 남편에게는 물론 자식에게도 기대하지 않는 자주성 품성을 지니고 있고, 자신감에 차 있으며, 낙관적이고, 적극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 여성으로 보았다.²⁶⁾ 사례 4)에서는 제주해녀가 강인한 정신력과 의지의 소유자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 한 마라토너의 승리 뒤에는 그를 길러준 제주해녀 어머니가 있다고 이야기한다.

이와 같이 제주해녀에 관한 연구에서 제주해녀는 근면하고 강인한 존재로 나타나고 있다. 제주해녀의 근면성은 자율성과 낙천성과 함께 제주해녀의 기질론으로 제주해녀를 다룬 여러 다른 글에서도 재생산되고 있다.²⁷⁾ 제주해녀는 지역의 관광전문지를 비롯한 여러 잡지에 종종 등장하고 있다.

사례 5)

이 고장 [제주도]의 해녀는 부지런하고 기술과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 다른 지방의 해녀보다 수도 많고 특출한 솜씨를 보이는 이유가 혹시 혈통에 관계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기도 하겠지만 그건 결코 아니다. 척박한 땅에서 억척스런 생활력을 길러온 제주의 여자들은 어려서부터 물질을 익혔고 부지런하지 않으면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오랜 노력의 결과로 그 솜씨가 뛰어나게 마련이었던 것이다.²⁸⁾

사례 6)

26) 조혜정, 앞의 글, p. 159, p. 160.

27) 권귀숙, “제주해녀의 신화와 실제,” 「한국사회학」 제 30호, 1996(봄호), p. 240.

28) 월간관광제주사, “참으로 끈질긴 해녀들의 힘: 제주해녀의 역사와 현황,” <월간 관광제주> 제6호, 1985, p. 80~82.

제주의 여성은 자신들의 삶을 부정적인 입장에 놓인 적이 없이 주어진 환경과 여건을 최대한 이용하는 슬기를 발휘해 왔다. 그 표본이랄 수 있는 것이, 물질을 함께 하며, 어린 사람에게는 학교구실을 하고, 서로에게는 삶을 나누어 의논하고 숙의하는 토론장으로 ‘불턱’을 놓아 잠수공동체를 이루어왔고, …… 이상적인 더불어 사는 사회를 오래 전에 이룩했다.²⁹⁾

사례 7)

칠흙같이 어두운 겨울바다와 사투 끝에 무사히 생환한 高玉汝씨(54). 高씨는 지난 11월 23일 오후 4시께 우도면 조일리 영일동 해안 2km 지점에서 소라를 채취하다 실종. 이날 장장 12시간의 사투 끝에 스스로 해엄쳐 살아났다. 생과 死의 갈림길을 두고 눈보라 속 難바다 한가운데 던져졌던 高씨는 살아 돌아오자 지친 기색 하나 없이 오히려 미안한 듯 동네를 돌아다니며 인사 다닐 정도로 泰然自若해 제주海女の 표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³⁰⁾

1980, 1990년대에 쓰여진 위의 잡지 기사에서 제주해녀는 “억척스런 생활력”을 가진 부지런한 여성, 환경을 최대한 이용해 온 “슬기”로운 여성, 생사의 갈림길에서도 의연한 여성으로 그리고 있다. 사례 5)의 기사는 제주해녀가 그들이 처한 환경 때문에 부지런하지 않으면 살 수 없었기에 열심히 일을 하였고, 그런 노력의 결과로 그들은 강한 생활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쓰고 있다.

왜 제주해녀의 근면하고 강인한 이미지를 관광객들에게 심어주려고 했을까. 잡지의 기사에서는 관광객에게 제주의 자랑으로 제주해녀를 소개하고 있다. 여기에는 제주해녀의 부지런하고 강인한 면이 모든 여성의 귀감이 되는 것으로 여기게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도는 제주해녀에 대한 이미지의 고착화 뿐만 아니라, 제주해녀를 포함한 모든 여성을 초과노

29) 한림화, “제주섬의 특색 여자: 척박한 땅 일구며 수놓어 살아온 제주여성의 슬기,” <월간 제주인>, 1989. 9, p. 124.

30) 한국기자협회제주도지부, 「제주저널」, 창간호, 1993.

동으로 내모는 담론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여러 글에서 재생산되는 제주해녀의 “근면성의 신화”는 모든 여성들에게 부지런하고 강인해야 한다는 억압적 이데올로기로 작용할 수도 있다.³¹⁾

한편, 제주해녀가 제주여성의 전형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한 반론도 없지 않다. 이에 대해 제주도 여성단체의 한 지도자의 말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타지방 사람들이 제주도 여성을 전부 해녀로 알고 있어요. 해녀는 단지 하나의 직업의 종류일 뿐이지 그게 전체 제주도 여성의 삶은 아니잖겠어요. 이러한 것은 우리 도내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³²⁾

결국 제주해녀에 관한 연구문헌이나 잡지기사들에서 행해지고 있는 제주해녀에 대한 신화화는 외지인이거나 지역주민이거나 “제주도 여성을 전부 해녀로 알”게 하고 있다. 나아가서 제주해녀에 대한 신화화는 전체 제주여성에 대한 이미지와 이데올로기로 발전되고 있다.

제주해녀의 또다른 이미지는 그들의 역척스런 생활이 신비화되어 낭만적이기까지 하다. 이러한 이미지가 가장 잘 재현되고 있는 것이 관광안내 책자이며, 관광객들은 이러한 책자에서 가장 먼저 제주해녀를 만나게 된다.

사례 8)

가오리를 쥐고 있는 “해녀”의 미소 먼 얼굴들 또는 여성잠수들은 이어도 숨겨진 꿈을 반영하고 있다. 해녀와 주위의 바다사이에는 조화롭게 결합되어 있다. 해녀에게 바다는 그들의 삶이며 꿈이고 동시에 고향이다. 쉬는 날 없이 해녀는 망사리를 가지고 바다로 나갔다가 힘든 지난날을 잊게 휴식 시간을 마련해주는 전복과 소라들과 같은 풍부한 해산물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온다.³³⁾

31) 권귀숙, 앞의 논문, p. 241. 이 논문에서는 신화란 어떤 텍스트나 문화를 조건짓고,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서, 거의 집단적 무의식에 가까운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32) 월간 관광제주사, <월간 관광제주> 25호, 1986, p. 40.

33) 제주도, <Fantastic Paradise Cheju Island>, 1994, p. 47.

위의 사례에서 묘사된 제주해녀는 연구문헌이나 잡지기사들에서 보여주고 있는 생활의 치열함이나 억척스러움은 찾아 볼 수 없다. 그리고 이들은 “이어도의 숨겨진 꿈”으로 신비화되고 있다. 이어도는 제주의 전설 속에 나오는 상상 속의 낙원으로, 제주해녀는 제주의 이상향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미지화는 관광객에게 제주해녀가 낭만으로 다가오게 만들며, 이방인의 눈에 제주해녀의 쉬지 않고 일하는 모습마저도 신비롭게 보이게 한다. 이처럼 관광홍보 책자에서는 관광산업의 필요에 의해 낭만과 신비의 대상으로 재구성되어 나타나고 있다.

2. 상품화된 이미지

현재 제주도는 국내의 유명한 관광지이다. 관광은 관광지 주민이 생산하고, 영위하고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사회와 문화를 팔게 되는 특수한 거래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관광의 맥락 속에서 주민의 문화는 어떤 형태로든 관광객에게 팔려 나가게 된다.³⁴⁾ 제주해녀가 관광산업에 의해 상품화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제주도 해안도로를 따라 군데군데 위치하고 있는 <해녀촌>에서 볼 수 있다.

해녀촌에는 일반적으로 해녀상이 세워져 있다. 해녀상은 이곳이 제주해녀들이 직접 운영하는 음식점임을 상징하기도 한다. 관광객들은 이곳의 해녀상을 보면서 ‘제주해녀’를 만나게 된다. 해녀촌의 석상은 <사진 1>~<사진 3>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모두 실물보다 크게 제작되어 있다.

사진 속의 해녀상들이 제주해녀임을 알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물옷 때문이다.³⁵⁾ 지금은 제주해녀들이 고무옷을 입고 물질을 하고 있지만, 해녀상으로 형상화된 제주해녀는 모두 물옷(소중이와 적삼)을 입고 있다. 이는 물

34) 전경수, 「관광과 문화」, 일신사, 1994, p. 15.

35) 제주해녀들이 물질을 할 때 입었던 옷을 말한다. 보통은 물소중이를 가리킨다. 1970년대 이후부터 입기 시작한 고무잠수복을 온평리 해녀들은 “고무옷”이라고 하여, 물옷과는 구분하여 말하고 있었다.

<사진 1> 한경면 판포리 해녀상

<사진 2> 구좌읍 동복리 해녀상

옷을 입었던 과거의 제주해녀가 진 짜(authentic) 제주해녀라는 생각을 반영하고 있다.

<사진 1>과 <사진 2>의 해녀상은 1930년대부터 1970년대 사이에 입었던 어깨말이(조끼허리)를 댄 물옷을 입고 있다.³⁶⁾ 그러나 당시에 실제 제주해녀들이 입었던 물옷의 어깨말이는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가는 것은 아니었다.

<사진 3>의 해녀상 역시 193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 제주해녀들이 입

<사진 3> 애월읍 구엄리 해녀상

36) 김정숙, 앞의 논문, p. 76 참조.

있던 물소중이 위에 물적삼을 걸치고 있다. 이 해녀촌의 해녀상들은 모두 '큰 눈'(큰 물안경)을 머리에 쓰고 있다. 수중안경('눈')이 '작은눈'(작은 물안경)에서 큰눈으로 대체된 시기는 대략 1960년대이다.³⁷⁾ 따라서 이들 해녀촌의 해녀상들은 모두 1960년대에서 1970년대의 제주해녀의 모습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시기는 앞에서 보았듯이 경제개발에 역점을 두어 사회적으로 근면함이 강조되던 시기와 일치한다.

해녀촌의 해녀상들은 제주해녀를 '흉내'내고 있는 조형물일 뿐이다. 물웃을 입고 물질작업을 할 때는 머리수건이 필수적인데도 쓰지 않거나 혹은 <사진 2>와 같이 머리카락을 늘어뜨리고 있어 당시 제주해녀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또한 이들이 취하고 있는 자세는 모두 동일하다. 한쪽 팔을 들어 하늘을 향해 얼굴을 들고 있는 것은 실제 제주해녀들에게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모습이다. 바다에서 나와 소금기에 젖은 얼굴로 태양을 바라볼 여성은 아마 없을 것이다.³⁸⁾ 더군다나 해녀상들이 취하고 있는 자세는 흔히 전문적인 광고모델들이나 사진모델들이 사진을 찍을 때 취하는 자세이다. 이들이 입고 있는 물웃은 수영복에 가깝고(사진 1, 2), 모두 젊은 여성들이 모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앞서 보았던 부지런하고 강인한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재현되고 있는 것이며, 즉 일하는 여성의 모습보다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사진 4>는 석상제작소 내에 조성된 인공폭포의 모습이다. 여기에 있는 조형물 중 한 가운데 보이는 것은 魚神(男)을 안고 있는 인어(女)이며, 오른쪽에는 해녀상이 서 있다.³⁹⁾ 상상 속의 인어와 어신을 중앙에 배치시켜 전체적인 분위기를 성적인 분위기로 만들고 있다. 이들 뒤편에 해녀상이 배치되어,

37) 제주도, 「제주의 해녀」, 1996, p. 173 참조.

38) David W. Plath 교수(미국 일리노이대 인류학과)는 탐라문화연구소 주최의 학술 모임(1997. 5. 16)에서 일본에서는 물질을 하면 바닷물로 인해 피부가 상하고 검게 타서 얼굴이 미워지기 때문에 결혼 전에는 물질을 하지 않으려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39) 어신과 인어를 중심으로 양쪽 뒤에는 해녀석상이 있었고, 이 사진에서는 한쪽에서 있는 해녀석상만을 보여주고 있다.

인어와 어신이 만들어 내는 분위기 속에서 제주해녀는 성적 대상으로 이미 지화 되고 있다.

<사진 4> 인어와 魚神, 그리고 제주해녀

<사진 5> 해녀군상

<사진 5>에 나타난 석상제작소의 조형물은 제 각기 다른 자세를 취하고 있는 해녀상과 동자상이 모여 있다. 이곳의 해녀상은 지금까지 제시된 해녀상들과는 다르게 모성과 풍만함이 강조되어 있다.

제주해녀가 관광객들에게 상품화되어 많이 판매되는 곳은 관광토산품점이다. 제주해녀를 실제로 바닷가에서 만날 수 있는 관광객은 드물 것이다. 제주해녀를 소재로 한 관광토산품들은 제주해녀를 어떤 이미지로 형상화하였을까. 토산품점에는 목상과 석상, 좌상과 입상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든 해녀상을 대량으로 볼 수 있다.

<사진 6> 해녀 마네킹

<사진 7> 장식용 해녀 좌상

<사진 6>은 토산품점 입구에 전시된 해녀마네킹이다. 이국적인 마네킹의 얼굴에 물적삼과 물소중이를 연상시키는 옷을 입혀 놓았다. 그러나 실제의 물웃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을 입고 있어 이것이 단지 전시용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다. 토산품점의 주인은 마네킹의 물웃을 일년에 한 번 정도 세탁하여 다시 입히곤 한다고 말했다. 입구에 세워놓은 해녀마네킹은 이곳이 '제주해녀'가 있는 곳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 물론 관광객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기 위한 상업적 목적으로 마네킹을 입구에 세워 놓고 있는 것이다.

<사진 7>은 장식품인 해녀좌상이다. 망시리와 테왁을 가지고 있고 물안경을 머리에 쓰고 있는 해녀장식품은 실제 제주해녀의 모습을 재현하려고 했지만, 앞서 제시된 해녀석상들처럼 하늘을 응시하며 미소를 짓고 있다. 실

물보다 크게 세워지는 해녀석상이나 장식용 해녀상이나 모두 비슷한 이미지로 재현되고 있다. 이것은 제주해녀의 이미지를 '하늘을 응시하며 미소짓고 있는 모습'으로, 아니면 그와 같은 이미지가 제주해녀에게 적합한 이미지라고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진 8> 해녀 쟁반

<사진 9> 신혼부부 사진틀

<사진 8>은 '제주해녀'들의 사진과 제주시의 유명 관광지인 용두암 사진을 합성하여 만든 쟁반이다. 사진 속의 제주해녀는 하얀 물소중이에 소살(고기 잡을 때 쓰이는 도구)을 들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이들을 실제의 제주해녀라고 보지 않을 것이다. 이들 모두가 잘 빠진 몸매와 하얀 피부를 가진 전문적 모델들임을 알 수 있다.

<사진 9>는 신혼관광객을 위한 사진들이다. 사진들의 해녀상은 힘든 노동으로 생긴 근육이라고는 볼 수 없다. 이 사진들은 한라산과 돌하르방, 제주해녀와 신혼부부 등 제주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소재들을 담아 제주도를 상품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3. 제주해녀의 모습

<사진 10>과 <사진 11>는 1997년 가을, 성산읍 온평리 바다에서 물질을 마치고 나오는 제주해녀를 찍은 사진이다. 망시리와 테왁, 소살을 들고 나오는 이들은 검은 고무옷에 큰눈을 쓰고 있는 중년여성들이었다.

<사진 10> 작업을 마친 후 망사리를 들고 나오는 모습

<사진 11> 작업 후 불턱으로 향하는
모습

<사진 12> 귀가하는 제주해녀들

물질작업은 집단적으로 동시에 시작하지만 작업을 마치는 것은 기량에 따라 서로 다르다. 그리고 일정지역으로 물질하러 나가면 함께 작업하는 동료 해녀(벗)가 있게 마련인데, <사진 10>과 <사진 11>의 두 제주해녀가 바로 그런 벗이다.⁴⁰⁾

<사진 12>는 경운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얼굴을 돌리고 있는 모습이다. 제주해녀들이 모두 얼굴을 돌렸다. 모두 중년 또는 중년을 넘긴 이들은 사진에 자신의 모습이 찍히는 것을 꺼려하였다. 대부분의 제주해녀들은 자신이 모습이 노출되는 것을 싫어한다. 그 이유는 자신의 “몸매가 이쁘지 않아서”, 또는 “화장하지 않은 모습”이라 “초라해 보이니까” 남들이 사진 찍

40) 조혜정, 앞의 논문, p. 148 참조. 이 논문에서는 제주해녀들이 혼자서 물에 들어가지 않고 꼭 짝을 지어 작업을 하고, 물질이 상호의존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필자는 물질이 개인의 능력에 따라 소득을 올리게 되는 개인적 성격을 지님과 동시에 어촌계의 규율과 잠수회의 불문율에 따라서 물질을 하기 때문에 집단적이라고 생각한다.

는 것이 싫다고 한다. 어떤 제주해녀는 “돈이나 주면서 찍으면 그래도 덜 나쁘겠다”거나, “찍을 때 아무런 대가도 주어지지 않으니까” 싫다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제주해녀의 상품화에 대한 그들의 불신을 읽을 수 있다.

관광산업은 사람이든 사람의 정신이든 가리지 않고 판매대 위에 올려놓아 문화를 상품화하고 있다. 문화의 상품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은 자기비하, 자아상실, 소외감정 등을 경험하게 된다.⁴¹⁾ 예를 들면, 온평리의 한 제주해녀는 상품화된 해녀상을 보면 “못 살았던 기억이 나서, 가슴이 아파”라고 말하였다.

제주해녀는 재현된 해녀상을 보고 자신의 과거경험을 떠올리고, 자신들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꺼려한다는 사실에서 몇가지를 알 수 있다. 첫째, 제주해녀를 대상화하여 상징하는 행위가 반드시 제주해녀의 자긍심을 높여주는 것은 아니다. 둘째, 현실 속의 자신과 괴리된 채 과거의 모습으로 재현되고 있는 상징화는 제주해녀에게 심리적 비하감을 주고 있다. 셋째, 제주해녀는 자신들을 대상으로 상징화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지는 않다.

IV. 제주해녀의 물질에 대한 인식

다른 사람들이 제주해녀의 이미지를 만들거나 제주해녀가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거나 그 바탕이 되는 것은 물질에 대한 인식이다. 제주해녀의 입장에서 보면, 물질은 현재에도 하고 있는 일이지만 과거의 경험이기도 하다. 과거 물질에 대한 기억은 다른 사람과 제주해녀 자신 모두에게 제주해녀를 이야기할 때 의미 있는 준거가 된다. 제주해녀 자신들이 말하는 물질을 하게 된 동기, 물질의 좋은 점과 나쁜 점 등을 통해 제주해녀의 물질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41) 전경수, 앞의 책, p. 16.

1. 물질을 하게 된 동기

물질행위는 기본적으로 경제적 행위이다. 바다 깊숙이 자맥질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해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노동에 대한 代價, 즉 경제적 보상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다. 대개의 경우 제주해녀들은 물질을 15세에서 20세 사이에 그리고 결혼 전에 시작하였다.. 물질동기에 대한 제주해녀들의 응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놀이’로서의 물질이다. 물질을 “놀이로 시작하다가 익히게 되어서” 계속해서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때 놀이라는 것은 제주해녀 자신이 물질을 즐긴다거나 물질하며 논다는 의미가 아니라, 물질을 하게 된 자연스러움을 뜻한다.

두 번째는 ‘벌이’로서의 물질이다. 놀이로서의 물질과 다르게, 물질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었지만 “가정형편으로 인해 가게에 보태려고”, “생활이 곤란하니까 먹고살기 위해서” 물질을 했다거나, “시집이 가난해서” 본격적으로 물질작업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물질을 하게 된 동기에 따라 물질을 배워준 사람과 가게에서 물질소득이 차지하는 비중(물질의존도)도 다르게 나타났다. 벌이로 시작한 게 된 경우가 놀이로 하게 된 경우보다 현재에도 물질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높게 나타났다.⁴²⁾ 벌이로 시작한 물질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제주해녀는 여전히 경제적 동기가 크다는 것을 말한다.

42) 놀이로 하게 된 14사례에서는, 가게비를 물질소득에 거의 의존하고 있다는 사례가 4, 반이상을 의존한다는 사례가 2, 1/3정도 의존한다는 사례가 5, 거의 의존하지 않는다는 3개의 사례가 있었다. 이로 하게 된 23사례에서는, 가게비를 물질소득에 거의 의존하고 있다는 경우가 7사례, 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경우는 9사례, 1/3을 차지한다는 경우가 4사례, 거의 의존하지 않는다는 경우는 3사례가 있었다. 물질에 거의 의존하지 않는 사례는 현재 모두 고령자들로 채취량이 적은 사람들이다.

2. 물질의 좋은 점과 나쁜 점

물질은 자칫 목숨을 앗아가는 위험한 일이며, 반복된 훈련과정이 필요한 힘든 일이다. 제주해녀들도 물질이 고달프고 힘든 중노동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물질을 하고 있다. 대부분 그 이유는 물질이 “당장의 현금 소득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물질을 한다거나 “다른 일보다 수입이 많아서 [물질을] 한다”는 것이다. 제주해녀들은 당장의 현금을 조달할 수 있어 물질이 농사보다 더 낫다고 이야기하였다. 농사소득은 현금화되기까지 몇 달의 기간이 소요되지만, 대부분의 채취물은 보통 2~3일, 소라대금도 약 5~10일이면 현금을 손에 쥘 수 있다. 더군다나 물질은 자기의 기량에 따라 얼마든지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중·상군의 경우 연간 수입이 밭농사에 비해 더 많은 편이었다.⁴³⁾ 또한 농사를 지을 경우에는 토지와 자본(농약비, 인건비, 종자비 등)이 필요하고, 수시로 돌봐야 하는 잔일들이 있는 반면, 물질은 간단한 잠수도구(테왁, 망시리, 소살, 비창, 물안경 등)만 있으면 물때에 따라 자신이 일하고자 할 때 할 수 있다.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딸이 물질을 하겠다면 대부분 반대하겠다고 말한다. 자신이 물질을 배웠던 당시는 물질이 누구나 하는 보편적인 것이었고, “여자가 배우고 돈벌이 할 수 있는 것이 물질뿐”이었지만, 자신이 “물질을 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힘든 줄 알았고, 그런 일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다”고 하였다. 제주해녀들은 물질로 병을 얻고 해서 “자랑할만한 일도 못 되”고, “목숨을 맡기고 하는” 위험한 일이라서 “할 게 못”되며, 물질과 함께 발일도 해야 하는 노동의 과중함 때문에 딸에게 물질을 시키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였다. 물론 그들도 물질을 하겠다는 딸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제주해녀들은 물질을 해오면서 보람을 느꼈을 때를 이야기하면서는 물질하는 것에 대한 자긍심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러한 자긍심은 그녀의 자기 만족일 뿐 딸에게까지 영향을 주지는 못하고 있었다. 노동의 과중함은 타인들이 제주해녀를 부지런하고 강인한 존재로 상징화할 수 있는 근거

43) 제주해녀의 수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할 것: 김영돈, 김범국, 서경림, “해녀조사연구,” 「탐라문화」 제5호, 1986, pp. 145~268.

이다. 그러나 물질과 발일을 해야 하는 노동의 과중함 때문에 누구도 - 딸마저도 - 제주해녀가 되려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V. 제주해녀의 사회적 정체성

타인이 갖는 제주해녀에 대한 이미지는 그 집단에 속해 있는 나(제주해녀)에 대한 타인의 이미지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타인에 의해 상징화된 이미지로부터 나는 나의 사회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에 영향을 받는다. 물질로 인해 내가 타인에게 제주해녀로 인식되고, 나 역시 물질을 하면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제주해녀라는 사회적 정체성을 형성해 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 정체성은 他者が 나를 이렇게 보고 있을 것이라는 나의 생각이 때문에 타자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사회적 정체성은 달라지기도 한다.

1. 부지런하고 강인한 직업인

조사표를 가지고 면접조사를 한 37명의 제주해녀 중 다른 사람들이 제주해녀를 좋게 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6명이었다. 제주해녀는 힘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사람으로, 따라서 착하고 생활력이 강한 존재로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세대에 따라 사회적 정체성의 내용이 다르다. 60대의 두 제주해녀는 자신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준다고 말하고 있다. 제주해녀에 대한 여러 종류의 글에서 칭송한 제주해녀의 이미지인 ‘부지런하고 강인한’ 여성이라는 것이 이들의 사회적 정체성으로 자리잡고 있다.

반면에 현재 온평리에 살고 있는 38세의 중군해녀는 다른 사람들이 이제는 “해녀”를 하나의 직업으로 볼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녀는 물질소득으로 “남편 없이 혼자 사는 해녀들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물질이 여성의 일로서는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녀는

직업의식을 가지고 물질을 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직업에 관심을 보여주기 때문에 물질하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성산읍 관내의 가장 젊고 물질을 잘하는 한 젊은 상군해녀는 물질을 하게 된 것이 자신의 선택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녀는 물질도 “머리싸움”으로 하는 것이라며,⁴⁴⁾ 물질은 “자유직종이고 기술직이나 마찬가지로”라고 말한다. 높은 물질소득이 자신의 일에 대한 만족과 자부심을 심어주고 있다.

2. 천한 일을 하는 불쌍한 사람

조사표를 가지고 면접조사를 한 37명의 제주해녀 중 다른 사람들이 제주해녀를 좋게 보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모두 23명이었다. ‘다른 사람들이 제주해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고 보십니까?’라는 개방형 질문에 대해서, 40세의 제주해녀는 다른 사람들이 “제주해녀를 직업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삼아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는 돈벌이로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40대에서 60대에 걸친 4명의 제주해녀들은 다른 사람들이 제주해녀를 “구경하기 좋은” “제주도 특산물”로 “신기하게” 본다고 대답하였다.

이들의 이야기에서, 첫째, 다른 사람들이 물질을 운동삼아 재미로 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은 그들이 제주해녀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관광산업의 영향으로 다른 사람들이, 특히 외지인 관광객들이 자신들을 구경거리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는 관광산업에 의한 제주해녀의 관광상품화를 그들이 자신이 느끼고 있음을 말해준다.

제주해녀들은 자신의 과거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을 불쌍하게 보고 있다고 여기고 있었다. 그리고 23명중 가장 많은 14명이 다른 사람들은 제주해녀를 “천하게” 볼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이들의 경우 자신의 과거경험이 사회적 정체성에 강하게 영향을 주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이 제주해녀를 천

44) 예를 들어 부는 바람에 따라 바닷물이 어느 쪽으로 흐르고, 어디서 작업해야 한다는 것 등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게 보고 있다라고 여기는 이유 중의 하나는 제주해녀들이 힘들고 억센일을 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힘들고 억센일을 한다는 것은 제주해녀가 사회적으로 상징적인 존재로 이미지화 되고 있는 근거였다. 그런데 이들 제주해녀는 왜 다른 사람들이 천하게 본다고 생각하는가?

근면하고 강인한 존재가 필요했던 1960, 1970년대의 사회적 배경 때문에 제주해녀는 제주도의 상징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3D업종을 기피하는 현재의 세대 속에서 제주해녀는 어렵고, 힘들며, 더군다나 위험한 일을 하는 여성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제주해녀는 여전히 사회적으로 부지런하고 강인한 여성상으로 이미지화 되어 있지만, 그들 자신에게는 이러한 상징적인 존재로서의 의미보다는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피하는 일이라는 의미가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한 제주해녀(47세의 중군해녀)는 제주해녀가 부지런하고 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얼마나 할 것이 없으면 해녀질 한다고, 요새는 웃음거리밖에 안돼”라고 말하였다.

나아가서 대부분의 제주해녀들이 부지런하고 강할 수 있었던 것이 못살았기 때문이라고 그들 자신이 생각하고 있으므로, 못살았던 과거의 경험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을 천하게 본다고 여기고 있다. 과거의 자신이 과중한 노동을 해야만 했고, 물질밖에 배울 수 없어서 물질을 하게 된 경험이 그들의 사회적 정체성의 형성에 영향을 끼친 것이다.

다시말해 현재의 자신을 다른 사람들은 과거와 같은 제주해녀로 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에드워드 쉴즈의 주장처럼 “과거의 자신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과거의 모습 그대로 기억하고 있”다고 믿는 것이다.⁴⁵⁾ 결국 제주해녀를 연상하는 사람들이 현재의 제주해녀를 과거와 동일한 사람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해녀 자신도 “근본적으로 자신을 과거의 자신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⁴⁶⁾

다른 사람들이 제주해녀를 천하게 볼 것이라는 또다른 이유는 관광의 영향과 몰וט 때문이다. 현재 제주해녀를 재현하고 있는 석상들과 각종 토산품

45) Edward Shills, 앞의 책, p. 71.

46) Edward Shill, 위의 책, p. 72.

들은 모두 물웃을 입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따라서 재현되고 있는 제주해녀의 이미지 때문에 현재 제주해녀들은 고무웃을 입고 물질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연상할 때는 물웃(옛날 소중이에서 유래된 웃)을 입고 있는 것처럼, 또는 그런 웃을 입고 일하던 사람이라는 생각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3. 세대와 사회적 정체성

부지런하고 강인한 직업인이라는 사회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제주해녀들은 30대의 젊은 세대와 60세 이상의 나이든 세대였다. 현재 가장 활발하게 물질을 하는 40, 50대의 중간세대들은 거의 다 천한 일을 하는 불쌍한 사람이라는 사회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⁴⁷⁾ 30대의 젊은 세대는 직업으로서 물질을 선택한 사람들이며, 40, 50세대들은 6·70년대 제주사회의 변화를 겪으며 물질을 시작하여 현재 가장 활발하게 물질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60세 이상의 나이든 세대는 일찍이 50년대부터 물질을 시작하여 현재는 고령에 이른 제주해녀들이다.

세대에 따라 다른 사회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회적 정체성은 정체성의 한 측면(또는 관점)이므로 자신의 과거의 경험이 정체성의 내용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특히 세대별 차이를 보이는 사회적

47) 면접조사 대상자들이 물질을 배우기 시작한 나이는 대개 15세에서 20세까지였으며, 물질경력은 평균 38년이었다. 만약 15세에 물질을 시작한 제주해녀가 15년 동안 물질을 했다고 한다면 현재 나이는 30세에 해당한다. 하지만 30세 이하의 제주해녀는 현실적으로 찾아보기 힘들다. 반면에 물질을 20세에 시작하여 20년 동안 물질을 했을 경우 현재 나이가 40세이고, 40세 미만은 현재 젊은 해녀층에 속한다. 그러므로 이를 한 세대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물질을 시작하는 나이인 20세와 그후 물질경험 20년씩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하여, 40세 미만을 젊은 세대, 40에서 59세까지를 중간세대, 60세 이상을 나이든 세대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물질을 시작하는 나이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물질경험이 반드시 많은 것은 아니다.

정체성의 논의는 사회의 변화에 따른 여성의 사회활동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으로 밝혀질 것이라고 사려된다.

4. 他者의 의미

사회적 정체성은 他者가 나를 이렇게 보고 있을 것이라는 나의 생각이기 때문에 타자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사회적 정체성은 달라진다. 제주해녀들이 타자를 육지사람과 물질을 하지 않는 제주사람으로 구분지어 생각하고 있었다. 제주해녀에게서 이러한 구분이 형성되고 있는 것은 관광의 영향이 크다. 제주도 관광은 주로 한 국가사회 안에서의 육지사람과 제주사람의 만남이므로, 제주사람들은 육지사람이 자기 자신들을 보는 관점이 주로 관광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고 있다.⁴⁸⁾ 제주도민들은 자신들을 좋게 보지만 육지사람인 관광객들은 천하게 보거나 구경거리로 생각한다고 믿는 제주해녀들이 많았다.

이에 비해 나이가 55세인 한 제주해녀는 “같은 제주도 사람의 경우에 보면 그리 좋은 평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관광객이나 타지 사람들이 볼 때는 좀 흥미있어 하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였다.⁴⁹⁾ 이 제주해녀는 물질을 시작하게 된 과거를 제주사람들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객보다 같은 제주사람이 더 자기네들을 좋지 않게 보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자신들의 못 살았던 과거의 경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자기네들을 천하게 본다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제주해녀들에게 사회적 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의미있는 타자는 주로 같은 제주사람인 것이다.

48) 유철인, 앞의 논문, 1986, p. 82~83.

49) 이렇게 말한 제주해녀는 본 논문의 43쪽에서 소개했던 55세의 제주해녀와 같은 사람이다

VI. 결 론

제주해녀는 산소 공급장치 없이 바다 깊숙이 자맥질하여 해산물을 채취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들은 오랫동안 제주도 연안에서 물질을 해왔고 물질하는 기술은 한때 富를 축척하여 재산을 일구거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 되어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하였다. 제주해녀에 대한 부지런하고 강인한 여성의 이미지는 현재 60세 이상의 나이든 세대를 모델로 하여 그 이미지가 꾸준히 재생산되어 왔다. 1960, 1970년대 전국민이 부지런히 일하여 경제발전을 이룩하도록 요구되던 시기에 제주해녀는 그 역척스러움과 부지런함이 “근로의 여신”, “자립정신의 표상”으로 승화되어 사회적으로 알맞은 상징적 모델이 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미지는 지금까지도 각종 문헌을 통해 꾸준히 재생산되고 있다. 이러한 이미지는 제주해녀에게 자부심을 심어주기도 하지만 초과노동으로 내모는 담론이 될 수도 있으며, 제주해녀가 제주여성들의 전형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점에서 모든 여성들에게는 부지런하고 강인해야 한다는 억압적 이데올로기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제주해녀에 대한 또다른 이미지는 제주도의 관광산업 발달에 따른 것이다. 제주도가 국내 유명 관광지가 되면서 제주해녀는 ‘여자가 많은 섬’을 알릴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되어 상징화, 상품화되어 왔다. 관광상품으로서의 제주해녀의 이미지는 생업에 종사하는 여성으로서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르게 재현되어 왔다. 그리고 문헌을 통해 재현된 이미지와도 대조된다.

각종 석상들과 토산품, 관광안내 책자 등을 통해 본 제주해녀의 이미지는 일하는 직업인이 아닌 ‘여성’이라는 점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낭만적이고 신비화되기도 하며 성적 매력을 지닌 대상으로 재현되고 있다. 주로 해녀촌에 세워져 있는 각종 석상들의 서있는 자세는 모두 비슷한데, 그 모습은 전문적 광고모델들이 취하는 자세와 동일하다. 그리고 모두 날씬한 젊은 여성들을 모델로 삼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여러가지의 토산품과 관광안내 책자에서도 일관되게 재현되고 있으며 한껏 매력을 돋보이게 하는 여성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재현되고 있는 이미지와 달리 실제 제주해녀의 모습은

너무나 이질적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습이 타인에게 드러나는 것조차 싫어 하며 물질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복합적(이중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60대 이상의 세대에서는 자부심을 느끼기도 하지만 중년의 제주해녀들은 대부분 자신의 일을 비하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제주해녀가 자신들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지를 보기 위해 그들의 물질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정체성을 통해 접근해 보았다. 물질을 어떻게 생각하는 가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제주해녀를 바라볼 때나 제주해녀 자신 모두에게 의미있는 준거가 되기 때문이다.

물질은 본질적으로 경제적 행위이고 물질을 택할 때, 즉 물질을 하게 된 동기는 자신이 처한 경제적 상황과 깊은 관련성이 있다. 현재 물질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대부분의 제주해녀들은 벌이로서 물질을 택했던 사람들이고 그들의 동기를 보면 경제적 여건에 의한 절실한 사정 때문에 선택한 것이었다. 그리고 물질의 장점에서도 높은 소득과 빠른 현금교환 등 경제적 이유를 강하게 이야기 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제주해녀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면접 조사한 37명의 사례중에서 좋게 볼 것이라는 응답은 단 6명의 사례일뿐이고 대부분은 부정적인 응답이 나왔다.⁵⁰⁾ 따라서 물질의 경제적 측면에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사회적 정체성에서 부정적인 응답이 지배적이고 또한 딸에게 굳이 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이유는 경제적 측면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다. 대부분 노동의 과중함 때문에 물질을 시키지 않겠다고 응답하고 있으나 사실 물질방법은 과거와 거의 다름없이 행해지고 있으며, 오히려 더욱 용이한 점도 없지 않다. 이들에게는 물질이 가져다 주는 경제적 풍족함으로도 상쇄할 수 없는 비경제적 요소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물질 하는 자신들을 볼 때에 구경거리, 재미 삼아 하는 일, 너무 못살아서 하는 일 등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물질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과거 경험(경제적 여건) 때

50) 직업으로 본다면 30대의 젊은 상군해녀와 60대 이상의 나이든 세대에서는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고 23명의 사례에서는 천한 일을 하는 불쌍한 사람이라는 응답이 나왔다.

문이다. 이것은 “그들을 연상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과거와 동일한 사람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며 “바로 이점이 각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과거 상태에 대한 정체감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다.⁵¹⁾ 그 과거에는 과거 문헌에서 볼 수 있었던 나잡업에 대한 천시, 그리고 자신이 못살았기 때문에 물질을 선택해야 했던 경험 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오늘날 제주의 관광산업은 제주해녀를 관광상품화 하는 과정에서 실제와 다르게 이질화된 이미지로 재현함으로써 이들을 더욱 자기 비하와 소외 감정을 느끼게 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제주해녀의 이미지는 문헌에서 볼 때와 관광상품에서의 이미지가 서로 다르게 재현되고 있다. 문헌속에 재현된 이미지는 제주해녀를 비롯한 제주여성들에게 초과 노동의 담론 구실을 할 수 있으며, 상품화된 이미지 속에서는 성적 이미지만을 강조하는 이질화된 모습으로 이들의 자기 비하와 소외 감정을 부추기고 있다. 제주해녀들의 사회적 정체성을 통해본 그들 자신에 대한 규정은 재현된 이들 이미지와는 사뭇 다르다. 즉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유교적 관념, 중노동이라는 인식, 관광산업의 영향과 과거 자신의 물질경험 등의 이유로 사회적으로 상징화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

결국 제주해녀를 대상으로 한 이미지는 사회 변화와 상업적 목적에 따라 변화·조정되면서 꾸준히 재생산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그들 자신을 규정하는 데 있어 경제적 측면보다 유교적 관점에서 보았던 과거로부터의 뿌리 깊은 관념과 자신들의 과거 경험, 그리고 관광산업에 의해 강하게 영향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필자는 본 글에서 사회적으로 미화되고 상품화되고 있는 제주해녀에 대해 보다 실제적인 접근을 하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먼저, 이미지와 정체성의 개념은 정의 내리기 어려운 복합적인 개념이며,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역동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한 시점에서 하나의 틀로 분석하였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51) Edward Shills, 앞의 책, 1992, p. 72.

또한 이미지를 분석하기 위해 텍스트로 삼았던 문헌이나 조형물을 선택과정에서도 필자의 주관성이 개입된 것을 부정할 수 없다. 향후 제주해녀에 관한 문학작품, 민요, 각종 영상물 등에 나타난 이미지의 연구와 심층면접, 생애사 연구방법을 활용한 폭넓은 연구가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참 고 문 헌

장대원

1973 『海女研究』, 한진문화사.

권귀숙

1996 “제주해녀의 신화와 실체: 조혜정 교수의 해녀론을 중심으로,” 『한국사학회』 제30집, pp. 227~258.

김영돈

1994 “제2절: 해녀,” 『제주의 민속Ⅱ』, 제주도, pp. 190~280.

김영돈·김범국·서경림

1996 “海女調査研究,” 『탐라문화』 제5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pp. 145~268.

김은희

1993 “濟州潛嫂의 生活史: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김정숙

1990 “濟州島海女服研究,” 『탐라문화』 제10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pp. 53~142.

김향원

1990 “濟州島住民의 正體性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우낙기

1965 『제주도』, 한국지리연구소간행부

월간관광제주사

1985 “참으로 끈질긴 해녀들의 힘: 제주해녀의 역사와 현황,” <월간 관광제주> 6호, p. 80~82.

1986 “제주도 여성단체협의회 부활로 여성활동의 새전기 마련,” <월간 관광제주> 25호, pp. 38~42.

유철인

- 1986 “제주사람들의 문화적 정체감: 주변사회에 있어서의 적응방식,” 『탐라문화』 제5호, pp. 71~93.
- 1996 “어쩔 수 없이 미군과 결혼하게 되었다: 생애이야기의 주제와 서술 전략,” 『한국문화인류학』 29(2), pp. 397~419.
- 윤유녕
- 1997 “Toward reviving the myth of woman’s land,” 제1회 세계섬학술회의 발표논문(제주KAL호텔, 1997. 11. 28), 1997.
- 이 건
- 1976 『탐라문헌집: 제주풍토기』(출판년도 미상), 金泰能 역, 제주도교육위원회.
- 이기현
- 1996 “사회적 상상의 복원 혹은 상징의 사회학,” 『현대사회의 이해』, 문화와사회연구회 편, 민음사, pp. 41~62.
- 이문교
- 1997 『제주언론사』, 나남출판사.
- 전경수
- 1994 『한국문화론』, 일지사.
- 1994 『관광과 문화』, 일신사.
- 정근식
- 1997 “지역정체성과 도시상징 연구를 위하여,” 『지역사회 연구방법의 모색』, 전남대사회과학연구소 편, 전남대학교 출판부, pp. 117~148.
- 제주도
- 1993 『濟州道誌』 제2권.
- 1994 <Fantastic Paradise Cheju Island>.
- 1996 『濟州의 海女』.
- 1996 『제주형 사회복지시책』(1996~2005).
- 조혜정
- 1982 “제주도 해녀사회 연구,” 『한국인과 한국문화』, 한상복 편, 심설당, pp. 143~168.

한림화

1989 “제주섬의 특색 여자: 척박한 땅을 일구며 수놓어 살아온 제주여성의 슬기,” <월간제주인>(9월호), pp. 121~124.

한국기자협회제주도지부

1993 『제주저널』, 창간호.

Brown, Richard Harvey

1987 *Society as Text: Essays on Rhetoric, Reason, and Reality*,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Robbins, Richard H.

1973 “Identity, Culture, and Behavior,” *Handbook of Social and Cultural Anthropology*, John J. Honigmann(ed.), Rand McNally College Publishing Co.(Chicago), pp. 1199~1222.

Shills, Edward

1992 『전통』, 김병서·신현순 역, 민음사.

Images and the Social Identity of Cheju Female Divers

An, Mi-Jeoung

Department of Sociology,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female divers are represented as an image of the diligent and strong woman in the various kinds of articles. With such an image, they have become the symbol of Cheju women, and furthermore, the symbol of Cheju Island. Cheju female divers are also commercialized by tourist industry as an image of the attractive young woman, that is different from real one.

It indicates that the images of Cheju female divers are transformed and exploited according to social changes and commercial purposes.

Cheju female divers are those who dive without the aid of air apparatus and gather marine products. Even though diving is very hard, they continue to dive because of higher income than that from other agricultural works. Their social identity and others' imaginative reconstruction about them is based on how their diving is conceived.

The social identity of Cheju female divers, that is, the way they believe others consider them, is somewhat different according to generations. Cheju female divers of young generation in 30's, who took to dive as a job, think that others also consider them as a professional worker. Old generation over 60's states that others recognize it as those who have had hard time and that they are highly praised for their hard time.

Those in 40's and 50's who have dived most actively at present, however, believe that others, especially Cheju Islanders, regard them as

low, remembering their poor past. For one's social identity, it is important who are others. The significant others for Cheju female divers are Cheju Islanders and tourists from mainland.